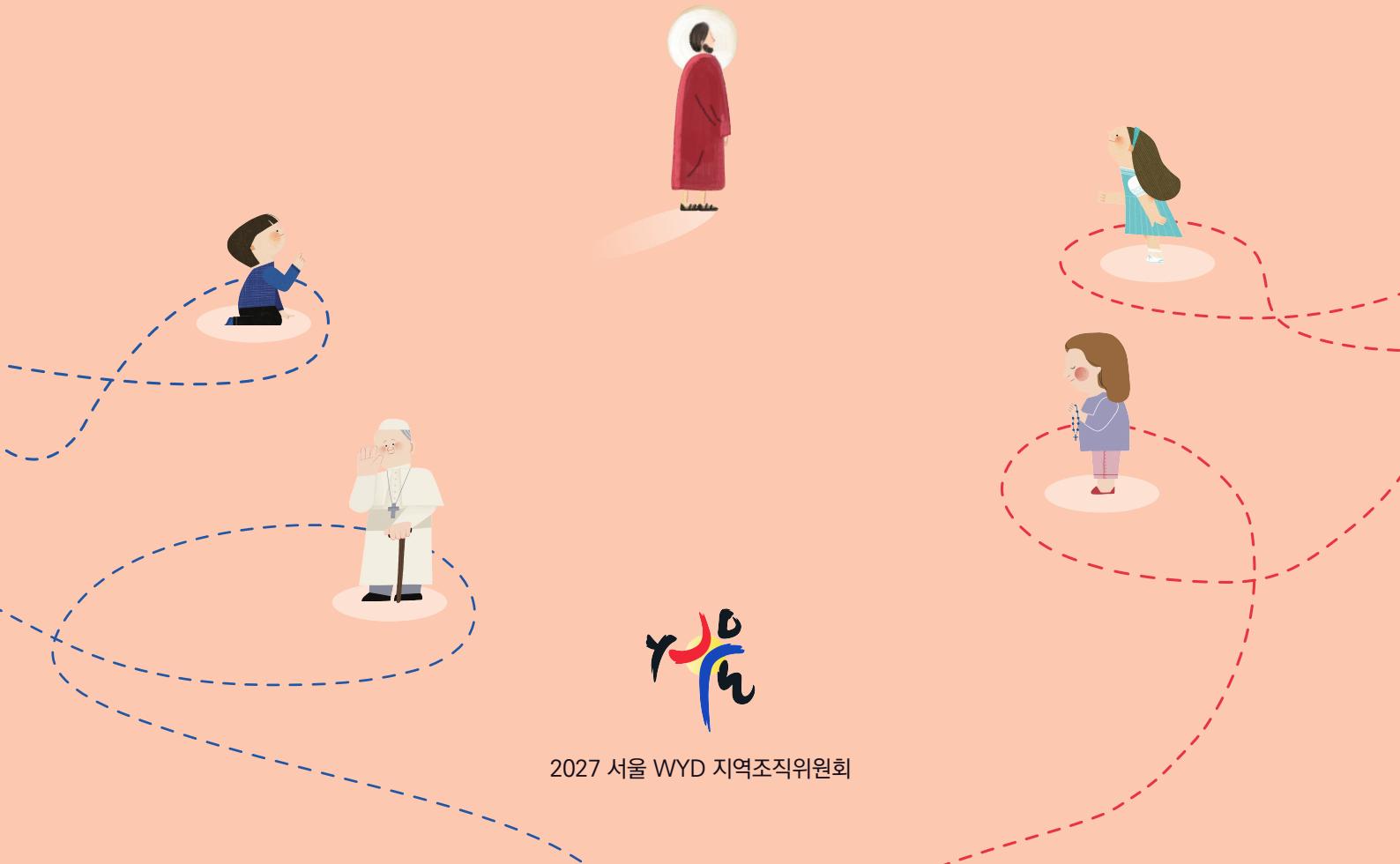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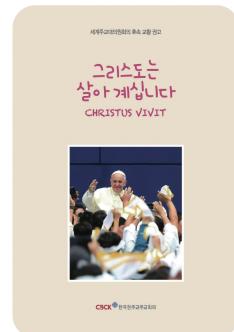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07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4장을 정성껏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여러분이 젊은데도 힘없고 지치고 실의에 빠진다면, 예수님께 새로운 힘을 청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행이나 나쁜 습관들, 이기심이나 불건전한 쾌락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예수님께 여러분을 새로워지게 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어 여러분의 젊음이 가치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만의 특별함과 고유함으로 세상에 여러분만이 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09항, 프란치스코 교황





생각해 보아요

-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가요?
.....
.....
.....
.....
.....
.....
.....
 -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 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님 안에서 어려움
을 극복한 체험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
.....
.....
.....
.....
.....
.....
 - 전 세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
.....
.....
.....
.....
.....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오늘 또는 지금의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 각자 메모지에 적고, 함께 모아 사진을 찍습니다. 해당 사진에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불안해지더라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고요히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이 평화를 다시 찾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영혼에게 이리 말 하십시오. “친구야,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뎠나 봐. 더 조심스럽게 나아가자.”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 그 무엇보다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 팔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발걸음이 휘청거리게 내버려두신다 하더라도, 이는 오직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대가 완전히 쓰러지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가시 속의 장미』 43~44쪽,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가톨릭출판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